

무주소방서, 제2대 김장수 무주소방서장 취임

무주소방서는 1일 제2대 무주소방서장으로 김장수 서장(전 전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장수 서장은 전주 출신으로 1989년 소방에 입문하여 △전북소방본부 소방기획예산팀장 △전북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 △장수소방서장 △전주완산소방서장 △전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그는 소방행정과 현장 실무 능력 등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처리에 있어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온화한 성품과 친화력으로 직원을 배려하고 공감해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장수 서장은 "나·우리·국민 모두의 안전이라는 복무 방침을 토대로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나 자신과 우리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하여 복무에 임해줄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장수 소방서장

우석대 정승원 교수, 한국직업재활학회 취임

우석대학교 정승원(재활상담학과) 교수가 한국직업재활학회에 취임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직업재활학회는 지난 28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정 교수를 제1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2년이다. 한국직업재활학회는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복지에 관한 연구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 활동 및 참여를 극대화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1년 창립됐다. 또한 등재 학술지인 직업재활연구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오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재활상담사를 국가자격으로 승격해 배출하고 있다. 신임 정승원 회장은 "장애인 재활 및 복지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학문의 심화 확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능력평가사의 법적, 제도적 지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정승원 교수



남원 주천면 육모정 음악동호회 발대식

남원시 주천면(면장 김재하)은 지난 28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음악동호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동호회 명칭은 '주천 육모정 음악동호회'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주민과 취미로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지역 활력에 앞장설 계획이다. 주천면은 지리산 둘레길의 시작점으로, 20년전에는 육모정과 구룡계곡 등에 많은 관광객과 피서 인파가 몰리면서 호황일 때가 있었으나 인구가 급감하면서 이 같은 명성이 점차 사라지면서 찾아오는 사람도 줄어 지역 자원 보존에도 위기를 맞고 있다. 이처럼 농촌지역 인구가 급감하면서 지역 소멸위기가 거론되는 가운데 창단하게 된 이 모임은 앞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거리, 먹거리 등 홍보는 물론 주민 생활에 밀접한 행사 등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김재하 면장은 "동호회가 주민들과 행복을 나누고 화합은 물론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각인 시킴으로써 살기좋은 고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여성새일센터 신규과정 직업교육훈련 개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여성새일하기센터가 1일 교육생 15명을 선발해 여성가족부 국비 지원으로 운영하는 '건강한 라이스 디저트 제조양성자 과정' 개강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한 라이스 디저트 제조양성자 과정' 교육은 가루쌀 100% 글루텐프리 재료로 건강한 라이스 디저트를 기반으로 하는 취·창업 교육훈련 과정으로 기획됐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루쌀과 농산물을 활용해 빵·쿠키·음료 제조 기법과 마케팅 브랜딩 전략기술 및 서비스업 종사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교육 과정으로 오는 8월 6일까지 매일 4시간(월~금요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선발 교육생의 대다수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글루텐프리 기술 습득과 카페 취업으로 현장 노하우를 축적하고 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창업에 뜻을 두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사 내방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부의장
-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부의장
- ▲서난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변인

저소득층 자활 위해 관계기관과 '맞손'

전북자치도, 5개기관 간 협력 지원... 자활생산품 경쟁력 강화 도모

전북자치도가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이들이 직접 생산하는 식품분야 생산품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관계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4개 기관(도,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식품연구원, 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식품연구원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생산시설 중 현대화가 필요하거나 생산품 품질향상을 원할 경우, 컨설팅, 교육, 우수식품 인증서비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사업대상을 발굴하고 해당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1,000만원을 지정 기탁해 식품분야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자활생산품 혁신에 힘을 보태 계획이다. 조성된 기탁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는지 관리할 예정이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협력과 지원으로 우리도 자활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활사업 여건이 마련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 집수리, 택배, 가공 등 257개소의 자활기업 및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카페, 외식, 영농 등 식품분야가 총 33%(84개소)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협약의 기대효과가 클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남원농협-춘향골농협, 도농상생 협력 '맞손'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1일 춘향골농협(조합장 김영규)을 찾아 도농상생자금 2,000만원을 전달하며 도농상생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농상생자금은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협동조합 간 협동'을 고취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조합원 실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활용하며, 영농자재 및 영농기술 도입, 청년농업인 육성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남원농협은 2018년 운봉농협에 도농상생자금 2,0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19년 지리산농협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춘향골농협에 2,000만원 지원하는 등 관내 농협에 총 6천만원을 지원하였다. 박기열 조합장은 "도시와 농촌농협 간 상생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농촌과 농촌농협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도시와 도시농협도 동반성장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또한 "협동조합 간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조합원 권익 보호와 실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군,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완료

부안군은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관리 수준 개선과 동물 보호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한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사계절 내내 보호동물의 질병 관리,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실·유기동물 관리에 필요한 개선함으로써 하였다. 특히 고양이 보호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보호가 필요한 고양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케이지, 바닥공사, 환풍기 등을 비롯해 바닥열선 설치, 냉·난방기 설치 등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초로 악취개선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이번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써 유기동물 기준 200두에서 300두 규모로 확대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복지 시설로 보호공간이 더 쾌적하여 동물복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형성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관외부 축산과장은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동물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길 바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반려동물 1번지 부안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제시 세정과,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 거리 홍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일 자동차세 정기납부 기일에 맞춰 '나로부터 성실납부 건전 재정의 시작입니다'는 주제로 대대적인 시내권 거리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세정과에서는 앞서 지난 6월 26일~27일 이틀 동안 시내권 홍보를 실시했으며 직원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현수막을 들고 하반기 지방세 납부 시기, 세외수입 체납액 안내,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전단지들을 배부하고 시민들이 지방세·세외수입 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전단지 배부, 하반기 정기 납부 시기를 담은 포스터, 배너를 비치해 시민들이 쉽게 홍보 내용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시 재정의 근간인 지방세·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실한 납부분과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시민 편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창군의회 이경신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고창군의회 이경신 의원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회의의장협의회(회장 최병환)로부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위상 제고에 힘쓰고 현장에서의 활발한 봉사활동과 선행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중심 가치 실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는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경신 의원은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고창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의 대표 발의와 '고창시범기부금 활용방안', '청소년 시설의 집적화' 등 5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부의장으로서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임정호 의장과 함께 노력을 기울였다. /고창=김명식 기자



운봉여성의용소방대 엄선영 대원, 강의경연 우수상

남원소방서(서장 양순주)는 지난 28일,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 운봉여성의용소방대(이하 연합회) 엄선영 대원이 '2024년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생활안전분야'에 참가해 우수상의 영예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 경연대회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안전전문강사로 육성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주최 도내 15개 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참가, 생활안전·심폐소생술 분야서 강의로 경연을 펼치는 대회다. 엄선영 대원은 '스름비(스마트폰과 쏘비의 합성어)'라는 주제로 출전, 보행중, 운전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고 증가에 따라 주변에서 흔히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등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강의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소방서, 의용소방대 강의경연 생활안전 최우수상

장수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지난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한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생활안전·심폐소생술 강의 경연대회에서 생활안전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강의 경연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 및 상호 교류, 지역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장수소방서 의용소방대 대표로는 조수미대원이 생활안전분야에 출전해 '함께 지키는 안전수칙,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주제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분야별 1위팀은 하반기 전국 강의 경연대회에 전북자치도 대표로 출전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덕유산서 만나는 바다' 무인판매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덕유대야영장에서 야영객 서비스 강화와 공원 내 특산물 유통 채널 확대를 위한 타당성 검증에 의해 국립공원 특산물 무인 판매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매 품목은 야영장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식재료로 밥 미역, 밥 다시마, 매생이 전복국 등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서 생산되는 가공품 7종이며, 판매금액은 1,000원부터 7,000원까지이다. 또한 상품은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수산물 가공 전문업체가 납품을 하며, 무인 자판기 관리는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보건소, 초교 1~2년 대상 치아홈메우기 실시

정읍시 보건소는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16개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강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치아홈메우기 대상자 300명을 선정해 진행된다. 시 보건소는 치과공중보건과,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운영팀이 치과치료 장비를 갖춘 구강보건 이동버스를 활용해 해당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 버스 내에서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치아홈메우기는 충치가 없고 충치 치료를 하지 않은 건강한 영구치 어금니의 좁고 깊은 홈에 흐름성 있는 재료로 메워 음식물·세균의 끼임을 방지해 구강 관리 능력이 부족한 학령기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치아우식증 예방법이다. 또한 불소 도포를 병행해 치아우식증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